

한전공대 부지선정 앞두고 광주 vs 전남 유치전 ‘활활’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국전력

자치단체별 3곳 추천받아 현장실사 심사추 최종 부지 이달 말 확정 예정

한국전력이 설립하는 ‘한전공대’의 부지가 이달 말 확정된다. 한전이 적절한 부지를 찾아 나선 가운데 공대를 유치하겠다고 적극 나선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전공대 설립 관련 기본협약’ 체결식이 열릴 예정이다. 체결식에는 광주시장과 시의회의장, 전남도지사과 전남도의회의장, 한국전력사장 등이 참석한다.

협약의 핵심은 부지선정기준을 인정하고 선정결과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수용한다는 내용이다.

협약 체결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

자체로부터 신청받은 부지후보지중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세곳을 범정부협의체인 한전공대설립추진위원회에 추천한다.

한전은 두 지자체로부터 총 6곳의 후보 부지를 제안받은 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실사 등을 실시한다. 최종 부지는 1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5개 자치구 가운데 동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광주시에 유치제안서를 제출했다. 남구는 대촌동 도심첨단산단 일원, 광산구는 옛 전남축산시험장 부지, 서구는 매월동 일대, 북구는 첨단3지구를 후보지로 각각 내놨다.

전남에서는 나주시가 한전 본사와 에너지밸리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역 내 3곳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지가 확정되면 재정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특별법 제정, 인허가 심의 과정 등 또한 논의돼야 하는데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어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이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면 2022년 개교 목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는 한전공대 부지 선정을 기점으로 대학설립 업무가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해”라며 “아직 중요한 고비들이 남아있지만 지원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한전은 용역 중간보고서를 통해 “학생 1000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는 한전공대 설립의 밑그림을 내놨다.

강소 대학의 방향성에 맞춰 학생 수는 1000명+α(외국인 학생)으로 정했다. 6개 에너지 관련 전공에 각 100명의 학부생이 필요하다고 판단, 우리나라 과거 평균 학부생 비율을 따져 최소 학부생을 400명을 잡았다.

교수 숫자는 우리나라 5대 과학기술특

성화대학과 해외 우수 대학의 학생-교수 비율(10명당 1명)을 따져 100명으로 계산했다.

부지 120만㎡는 대학 40만㎡, 클러스터 40만㎡, 대형연구시설 40만㎡ 등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에게는 학비 부담과 기숙사 비용을 전액 면제해준다.

총장은 노벨상급 국제상 수상 경력자를 초청해 미국 최고 수준(100만 달러+α) 연봉을 주고 학교운영의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수들에게도 과거 3배 이상의 연봉(4억원+α)을 주고 국내 대학 2배 수준의 연구 시드머니(10억+α)를 제시했다.

한전측 한전공대의 발전 단계를 3단계로 나눠 “에너지 분야에서는 20년 내 국내 최고, 30년 내 5000명 대학 클러스터 규모의 세계 최고 공대를 실현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자연주의 치약 브랜드 ‘스몰란드’ 첫 선

애경산업

북유럽 청정지역 자연 유래 성분 담아

애경산업은 북유럽 자연주의 오랄케어 브랜드 ‘스몰란드’(SMALAND)를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스몰란드는 북유럽 청정지역에서 자란 소나무가지껍질추출물 등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한 자연주의 치약 브랜드다. 브랜드명 ‘스몰란드’(SMALAND)는 스웨덴 청정지역의 지명이자 작은, 적은이라는 뜻의 ‘스몰’(Small)과 지역이라는 뜻의 ‘랜드’(Land)의 합성어로 충치 예방에 필수 성분인 불소 등 치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화학성분과 북유럽 자연에서 자란 자연유래성분을 함유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스몰란드는 ▲노르딕 클래식 민트향 ▲포레스트 프레쉬 민트향 ▲스웨디쉬 마일드 민트향 등 성인용 치약 3종과 ▲노르딕 마일드 베리향 ▲노르딕 마일드 프루티향 등 어린이 치약 2종으로 출시됐다.

스몰란드 치약은 치아 표면의 치태를 제거하며 충치, 잇몸질환 등 다양한 구강

고민을 해결해주는 치약이다. 합성원료인 사카린, 타르색소, 동물성원료, 벤조페논, 페녹시에탄올 등 10가지 성분을 배제하고, 구강 관리에 꼭 필요한 불소, 비타민, 실리카 등을 함유했다. 또한 인공감미료인 사카린 대신 자연에서 얻은 스테비오사이드, 에리스리톨을 함유했으며 핀란드 자작나무에서 유래한 100% 나무 유래 자일리톨을 함유해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스몰란드 치약은 항산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프로시아니딘,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다양 함유된 핀란드산 소나무가지껍질 추출물을 함유했다. 소나무가지껍질 추출물은 애경산업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은 핀란드 원료사 핑그리디언트(Fingredient)에서 개발한 자연추출 원료다.

스몰란드 치약은 식물이나 미네랄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성분을 기초로 해 치약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가공된 원료를 99% 이상 사용했으며, 슬레이트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아 구강 자극을 줄여 양치 후 주스를 마셔도 본래의 맛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소비자원 “정수기 렌탈 ‘비용·부가혜택’ 불만”

설치기사 서비스 관해선 만족도 높아

피해구제 신청 교원웰스가 가장 적어

소비자들은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과 부가혜택에 불만이 컸으며, 설치기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가정에서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12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과일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가입자 수 상위 6개사로, 교원웰스,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LG전자, SK매직(가나다순) 등이다.

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서비스 호감도 3개 부문에 대한 조사에서 6개 업체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에 평균 3.64점이었다. LG전자가 3.77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코웨이(3.65점), 교원웰스·청호나이스(3.63점), SK매직(3.60점), 쿠쿠홈시스(3.53점) 순이었다.

설치기사 서비스, 관리직원 서비스, 제품 다양성 등 5개 요인으로 평가한 서비스 상품 만족도에서 설치기사 서비스 만족도가 평균 3.91점으로 높았으며, 렌탈비·부가혜택 만족도는 평균 3.32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수기 렌탈 서비스 소비자만족도〉

(단위: 점/5점 만점 기준)

구분	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종합 만족도
		설치기사 서비스	관리직원 서비스	제품 다양성	정보 이용 편리성	렌탈비·부가혜택	서비스 호감도**		
LG전자	3.91	4.06	4.00	3.69	3.63	3.40	3.73	3.77	
코웨이	3.79	3.94	3.81	3.69	3.59	3.32	3.64	3.65	
교원웰스	3.77	3.87	3.77	3.53	3.51	3.39	3.63	3.63	
청호나이스	3.76	3.86	3.76	3.54	3.53	3.36	3.64	3.63	
SK매직	3.75	3.92	3.77	3.58	3.45	3.25	3.60	3.60	
쿠쿠홈시스	3.68	3.72	3.70	3.43	3.30	3.20	3.56	3.53	
평균	3.78	3.91	3.80	3.58	3.50	3.32	3.63	3.64	

*정수기 렌탈 서비스 업체의 직원 전문성, 고객응대 신속성 등 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만족도 측정.
** 소비자가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한 평가로 긍·부정의 빈도 측정. /자료=한국소비자원

업체의 직원의 전문성, 고객 응대 신속성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78점, 소비자가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느낀 주관적 감정을 평가한 서비스 호감도는 평균 3.63점으로 각각 조사됐다.

정수기 렌탈 서비스의 개선할 점으로는 의무사용 기간 단축(27.4%),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26.4%), 정수기 관리직원의 잦은 교체(17.5%) 등 순으로 응답이 많아 정수기 렌탈 계약과 해지 분야에서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5~2017년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6개 정수기 렌탈 서비스 업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51건이었다. 가입자 10만명당 건수는 교원웰스가 3.8건으로

가장 적었고, 청호나이스가 43.1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사건 중 환급, 배상, 계약해제 등 보상 처리된 사건 비율(합의율)은 교원웰스 78.9%, 청호나이스 68.3%, SK매직 67.6%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사업자와 공유하고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도서 구매도 쿠팡에서

북포라이프 테마 ‘나로서기’ 오픈

쿠팡은 2019년 새해를 맞아 ‘북포라이프’ 카테고리의 신규 테마 ‘나로서기’를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나로서기’ 테마에서 쿠팡은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기에 도움이 되는 책과 다양한 관련 상품을 모았다. 나를 아끼는 현대인을 위해 ▲자기계발, ▲자존감 높이기, ▲신년 계획 등 3가지 테마로 구성해 대상별로 도서 외에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추천 아티

템을 선보인다.

자기계발 테마에서는 영어 마스터부터 글쓰기 비법까지 나를 위한 다양한 자기계발 도서를 제안한다. 특히 체력키우기, 건강챙기기, 지식쌓기 등 자기계발 인기 키워드에 맞는 운동용품, 건강식품 등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자존감 높이기 테마에서는 자존감 상승을 위한 책과 캔들, 스피커, 흡카페 상품을 추천한다. 신년 계획 테마에서는 필수아이템인 다이어리, 탁상용 달력 등의 상품을 둘러볼 수 있어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원서 기자

‘보랏빛 앰플’ 4세대 등장... 미샤 ‘프로바이오 앰플 압축 크림’

더 퍼스트 에센스·3세대 보랏빛 앰플 함께 100만병 판매 돌파 기념 출시

미샤는 ‘타임 레블루션 나이트리페어 프로바이오 앰플 압축 크림’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신제품 프로바이오 앰플 압축 크림은 미샤의 4세대 보랏빛 앰플 유효 성분을 압축시킨 제품이다. 미샤가 개발한 ‘코어 프레스(CORE PRESS)’ 공법으로 압축한 유효 성분을 탄성 리포솜을 이용해 피부 사이 깊숙이 흡수시킨다. 피부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10가지 유산균 발효 성분, 외부 자극을 진정시켜주는 보랏빛 과일

과 채소 성분을 함유했다.

미샤는 더 퍼스트 에센스의 주요 유효 성분 보습효과를 강화한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세럼 에멀전’도 함께 선보였다. 방·온 두 번의 발효 과정을 거쳐 활성화된 시카호모 발효물과 진주초, 쌀 추출물 등을 함유해 피부를 윤기나고 매끈하게 가꿔준다.

미샤는 기존 3세대 ‘보랏빛 앰플’과 ‘더 퍼스트 에센스’를 업그레이드 시킨 4세대 ‘프로바이오 보랏빛 앰플’과 ‘더 퍼스트 에센스 RX’도 함께 선보였다. 4세대 프로바이오 보랏빛 앰플은 3세대 제품에 비해 피부를 건강하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성분이 10배 강화됐다.

신제품들은 더 퍼스트 에센스와 보랏

빛 앰플의 누적 판매 1000만 병을 기념해 출시됐다. 지난 2011년 10월과 이듬해 1월 첫 선을 보인 더 퍼스트 에센스와 보랏빛 앰플은 출시 이후 7년간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그 결과 2014년 9월 누적 500만 병 판매를 돌파했고, 지난해 12월 더 퍼스트 에센스 547만 병, 보랏빛 앰플 453만 병 함께 1000만 병 판매를 달성했다. /김민서 기자

